



송강조경을 찾아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선운사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복분자와 풍천 장어 그리고 황토
수박으로 유명한 전라북도의 서남쪽 이
름난 조경수 집단재배 지역인
고창군에서 우량 명품 조경수만을
생산하는 유승환 사장의 송강조경농장
을 찾았다.



유승환 (송강조경 대표)

명품 조경수 농장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옛날 선사 시절 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농경 생활이 발달하여 남방식 고인돌의 최대 분포지이며 앞서가는 선진 농업 고장인 아산면 중월리에 자리한 송강 조경은 남다른 식재 방법과 독창적인 전지, 전정으로 나무들이 질서 정연하게 오와 열을 맞춰 하나같이 멋진 수형을 갖추고 서있는 모양은 한 눈에 우량 명품 조경수 농장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그의 농장은 대면적의 집단화된 농장은 아니다.

이곳 중월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몇 천평에서 몇 만평씩 분산되어 심겨진 그야말로 아주 일반적인 조경수 재배지다. 넓은 들녘 한적한 마을 도로변에 자리한 농장은 “송강조경농장”이라 새겨진 멋진 화강암 간판석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진 소박하기 그지

없는 농장으로 고창 지역 특유의 구룡지역 황토밭에 금년에 갓심은 대왕참나무 포지와 3년 생의 메타세콰이어 그리고 가지는 다 전지되고 몽툭한 줄기만 남은 느티나무들이 울타리나 경계표지 하나 없이 나무만 심겨진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자아낸다.

첨단 과학 기술자의 귀농

그는 이곳 농장이 있는 중월리에서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의 3남 3녀중 5번째, 아들로는 막내로 1966년에 태어났다. 고창고등학교 이과를 졸업한 그는 군복무를 마친 후 첨단 과학 기술자의 꿈을 안고 1991년 일본에 유학하여 모든 생산과정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기술 교육을 4년간 이수하고 귀국, 서울의 정밀기계 제조 공장에 취업하였으나 공해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6개월 만에 귀향, 1995년부터 농촌 생활로 뛰어든 것이 지금의 젊은 조정인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워낙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했던 그는 일본 유학 중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밑천으로 2,000평 토지를 빌려 단기수인 회양목 재배부터 시작하고 아울러 삼계탕용 어린 육계를 사육하는 양계장을 운영하여 단기간에 일어난 성공한 귀농인이 되었다.

소수정예 조정수 생산

처음 6~7년간은 양계장 사업과 겸하면서 주로 회양목 등 단기 수종 재배와 이따금 산림 훼손지에서 나오는 자연생 소나무들을 소량씩 굴취, 가식한 후 판매하면서 조정수들은 수형이나 품질에 따라 많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에 착안 특수한 고급 수종이 아니라도 수형과 품질이 뛰어난 "명품 조정수"만 생산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양계장은 접고 일반적 대표 수종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3종을 선택, 조정수 재배에만 전념하면서 경운 방법, 식재 간격, 전지와 수형 조절, 비배 관리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하고 터득해 나가면서 인근 농장과 선배 조정수들을 찾아가고 멀리 있는 모범 농가와 연구, 교육 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술과 요령을 터득하고 일본 유학했던 경험을 살려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등 실패와 좌절을 맞본 끝에 나름대로의 재배 노하우를 터득, 지금의 소수정예 명품 조정수 농장으로 태어났다.



처음 조정기술을 배운 누님댁 농장전경



도로변에 세워진 송강조정경 간판과 농장



금년에 식재한 대왕참나무 포지



느티나무 농장

선진 농업의 선구자 고창 농민들

고창지역에는 2500년 전의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남방식 고인돌인 관계로 무심코 지나다 보면 야산이나 논, 밭 심지어 마을 주택가에 까지 흩어져 있어 그저 단순한 자연석으로 착각되는 커다란 돌들이 많지만, 북방식, 개석식, 위석식 등 8가지 형태의 고인돌들이 혼재된 고창이다. 고창군내에 2,000여기가 있고 특히 그의 고향이며 농장이 자리한 아산면에는 집단적으로 400여기가 모여 있다니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정착 농경생활이 발달하였고 지금도 농업 분야에서는 항상 앞서 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오는 곳이 이곳 고창이다. 멀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이곳 고창지역 집강소가 가장 강한 세력으로 봉기하였으며, 근래에는 모든 지역이 식량작물 재배에 매달릴 때 과감하게 복분자 딸기를 재배하여 지금의 건강 사회에 걸맞는 최고의 소득 작물을 개발해 내었고, 야산을 개간 유명한 황토 수박 단지를 이룬 곳도 이곳 농민들이며 조경수 또한 해풍을 받고 온난화가 적당한 기후에서 자라 전국 어디를 가도 생육이 잘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저마다 고품질의 조경수들을 생산하는 “조경수 집단 생산 단지화”를 이룩한 곳이 고창으로 그 많은 조경인들 속에서도 이곳 유승환 사장의 송강조경농장은 가장 흔한 일반 수종으로 명품 조



조경수재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누님덕 분재원

경수들을 생산해 냄으로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우직한 농사꾼

이곳 송강조경농장의 나무들은 지나가면서도 눈에 알아 볼수 있다. 그저 흔한 어느 밭을 가보나 오와 열이 다 맞고 크기와 모양새가 일정하며 하나의 흠어짐 없이 가지런하고 활기찬 나무들이 잘 훈련된 열병식을 보는 것 같다.

농장의 수종들은 단순하다. 이팝나무, 배롱나무, 섬잣나무가 심겨진 작은 포지와 칠엽수, 단풍나무의 어린 묘목과 철쭉들이 조금씩 있을 뿐 낙엽 활엽

수인 느티나무, 대왕참나무와 침엽수인 메타세콰이아 3종류만 전문으로 재배 생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수정예 방식이다.

그는 조경인이라면 흔히들 겸하는 조경공사나 단순한 식재 시공도 하지 않고 오직 재배 생산만 전념하는 우직한 농사꾼이다.

고정 판매처도 대형 공사업체에 납품 할 수 있는 판로도 없지만 그의 나무들은 생산되기도 전에 입도선매 된다. 지금도 사방에서 나무좀 달라고 성화지만 물량이 없다. 비록 고급 수종도 아니고 커다란 간판이나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지만 그의 나무들은 한번 보면 누구나 탐을 내어 고가로 출하되는 최고의 상품가치를 자랑한다.

유명 맛집이 소문만으로 손님들이 모여들 듯 이곳 역시 명품을 찾는 고객들과 기술전수를 바라는 학생이나 예비 조경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역발상의 지혜들

그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일반인들에 반하는 조경수 재배를 구가한다.

나무에도 궁합이 맞는 명당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먼저 마련하고 그 땅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보통이지만 거꾸로 그는 먼저 수종을 선택하고 그 수종에 맞는 토지를 찾아 나선다. 폴리텍 대학에서 풍수지리학을 수료한 그는 사람마다 맞는 명당이 있듯이 나무에게도 적합한 명당이 있어 토지에 따라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래서인가 대부분 임차 농지인 원인도 있지만 나름대로 명당을 찾아 그의 농장은 사방에 조금씩 흩어져 있다.

소식 재배 명품 생산

재배 간격은 최대한 넓게 소식 한다. 보통은 밀식을 하고 수하식재를 하여 한 본이라도 더 심으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넓게 오와 열을 맞춰 소수의 명품 대경목 생산을 목표로 한다. 밀식하여 우선 큰 것만 추려서 판매하다보면 나머지 불량목들은 그냥 폐기 하는 일이 많아 전량 최상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식 재배 후 정해진 줄에 있는 것만 먼저 출하하면 항상 간격도 넓고 일정하게 되며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높은 대형 조경수가 생산 된다.



느티나무 전지방법 설명



대왕참나무 농장

송강조경농장의 재배 비법

그는 특이할 것도 비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누구나 다 아는 방법들이라고 한사코 겸손해 한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재배법은 조경인 아니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로 단지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란다. 그가 배우고 경험하여 얻은 다음 방법들을 꼭 실천해 오고 있단다.

첫째 : 적지적수 재배

아주 기본적인 토질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인데 그는 특이하게 나무에도 풍수지리를 적용하여 적합한 명당자리를 선택한다.

둘째 : 깊은 토심 높은 이랑

토심을 깊게 갈아주고 고랑은 깊고 두둑은 높게 하여 뿌리 발달을 최대한 높인다.



메타세콰이아 농장

셋째 : 간격은 넓게

밀식보다는 넓게 소식하는 것이 수형 좋은 고품질의 대형목이 생산되고 수익성 또한 높단다.

넷째 : 지하고는 높게

특히 장기수종인 활엽수들은 반드시 전지와 수형 잡기를 제대로 하여 지하고를 최대한 높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다섯째 : 어린 묘목은 1년 키운 후 정식

구입 묘목들은 곧바로 정식하지 말고 1년간 키운 후 우량 묘만 선별 정식하여 품질을 높인다.

여섯째 : 풍족한 비배 관리

영양이 좋아야 색깔도 모양도 좋아지고 병,충해 없이 건강해 진다. 그는 가축 분뇨와 톱밥을 구입 발효시켜 사용하고 아울러 지효성 복합비료를 항상 풍족하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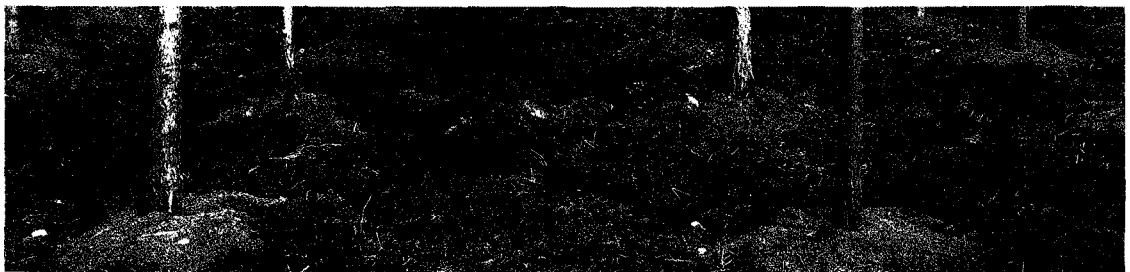
이렇게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을 그는 남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부지런하게 가꾸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기술이라 말한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나무와 더불어 생활하다보니 지금

의 명품조경수 농장이 되었다.

조경인의 꿈을 키운 누님댁 농장

그가 어렵게 공부한 첨단 로봇 엔지니어의 꿈을 접고 조경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순전히 누님댁 즉 매형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가 어렸을 때 출가한 누님댁이 지금 고창에서 이름난 중견 조경인인 금파농장의 김훈성 사장이다. 어릴적부터 누님집에만 가면 각종 조경수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항상 동경해오다 고교 졸업 후 군 입대전 3년간을 누님집에 거거하며 조경수 재배 관리의 물론 구입, 판매와 각종 기술적인 모든 것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배우고 체험 하였기에 주저 없이 조경인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 그가 우량 명품 조경수 농장을 가꿀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도 모두다 매형의 덕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그는 틈만 나면 매형 집에 들러 각종 조경수들을 가꾸고 관리 하는 것을 다시금 보고 배우지만 특히 그가 예전에 애정을 갖고 돌봐주던 분재원은 꼭 돌아 본단다. 옛날 그 분재들이 지금도 멋진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볼라 치면 자신도 모르게 흐릿한 행복감에 젖는다. 그때의 영향이 몸에 배서 인가 그는 모든 조경수 하나하나를 분재를 가꾸듯 미적 예술성을 최대한 가미하여 재배한다.

지금도 금파농장 김홍성 사장은 그의 정신적 지주요 든든한 후원자이다.

향토사랑 조경사랑

그의 향토사랑은 대단하다. 고창 모양성을 비롯한 각종 역사나 문화적 사료와 특산물 자랑을 늘어 놓으며 유명한 고찰 선운사가 같은 면내에 있다는 것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낀다.

봄이면 대웅전 뒤편에 펼쳐진 500년생 고목의 동백숲과 붉은 동백꽃, 가을이면 절 앞 도솔천을 휘덮은 불타는 단풍과 스님들의 속세와 인연이 담겨 상사화라 불리는 꽃무릇의 빨간 꽃술들의 애잔한 모습은 한번은 꼭 보아야 하고, 고창 특산물인 풍천 장어와 복분자주는 꼭 맛을 봐야 한다고 고향 자랑에 열성이다.

향토 사학에도 해박한 그는 비록 미완의 봉기로 끝났지만 불과 100여년 전인 1894년 3월 20일 동학 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세명이 창의문을 발표한 공음면 구암리 유적지와 선운사 도솔암 옆의 마애불의 복장비기 설화(비가가 나오면 한양이 망하고 비기를 꺼낸자는 벼락 맞는다)와 그것을 실제로 강제 탈취한 손화중에 수만명의 동학도가 모여들어 농민 봉기를 일으킨 무장기포지가 있는 역사 깊은 고장인 것을 설명하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과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는 현재 8개소 약20ha에 30만여본의 조경수를 재배하여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고향 발전에 앞장서는 조경인이다.

젊은 조경 가족의 소박한 꿈

그가 엔지니어의 꿈을 접고 귀농하여 오늘의 명품 조경농장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순전히 부인(박금엽)의 덕이라 한다. 서울 태생으로 농사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혼 초에 귀농하여 이제까지 인부들의 식사를 손수지어 나르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밭에 나가고 그가 장기 투병 중이었을 때는 농장 일을 도맡아 제대로 이끌어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모든 공은 부인에게 돌린다.



철엽수 묘목손질



전지된 느티나무농장

농사일에 바쁜 중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미화 작업이나 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불우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도 투철할 뿐 아니라 조경업 발전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여 선진화된 일본의 기술을 도입 보급 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조경수 협회에는 10년전에 가입하여 각종 협회 행사나 회원 상호간의 기술 교류와 친목 증진에 적극 동참하며, 명품 조경수 생산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는 견학과 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 조경인의 꿈을 품은 이들에게 소면적에 일반 보통의 수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젊은 조경인으로 2011년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앞날이 촉망되는 우수 조경인이다.

아직은 자랑할 것도 못되는 미숙한 것이 너무 많다고 겸손해 하는 그는 이제 어린학생들이 3남매가 잘 자라주기만 바라며 아무런 시설이 없는 허전한 농장에 조그만 관리사라도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젊은 조경 가족이다. 🌱